

[종합]

“국감 술판’ 피감기관서 마련”

생명연구 “의원들 술집에 안내했다” 진술 한나라, 임인배·김태환 당원권 정지·경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뒤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인배 위원장 등 3명의 의원은 당초 해명과 달리 피감 기관이 사전에 마련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5면〉

피감기관 한 관계자는 28일 “의원들은 식사를 마친 뒤 생명공학연구원 소속의 한 직원이 안내한 술집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 위원장이 지난 26일 항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하고 류근찬(국민중심당), 김태환(한나라당) 의원 3명이 우리끼리 한 잔 하자고 해서 바로 옆 술집에 갔고 나중에 어떻게 알고 (그 자리에) 피감기관장들이 왔다”고 한 해명을 뒤집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저녁식사 자리가 끝날 즈음인 오후 8시40분께 생명연구의 한 간부로부터 “인근에 노래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 직원이 전에 간 적이 있던 N단란주점으로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생명연구 간부가 이런

지시를 한 것은 특별히 자리 마련을 개별 기관 차원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여러 기관이 함께 받는 국감의 주관 기관이었기 때문에 보인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식사장소로 부터 도로를 따라 약 8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 주점에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얼마 뒤 7개 피감 기관 가운데 2곳을 제외한 5개 기관 기관장들이 와 합석을 했고 술판이 벌어졌다.

술자리에서는 간간히 노래부르는 소리도 새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술 자리에는 술과 안주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들락거리는 여자만 있었을 뿐 접대부는 없었다고 현장에 있던 생명연구 직원은 말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의원 1명이

먼저 나왔고 뒤이어 나머지 2명도 중간에 자리를 떴다. 이 시간이 오후 10시가 좀 안된 시각. 의원들이 떠난 뒤에는 기관장들만 남아 남은 술을 마시는 상태였다. 이 직원은 주점 마담에게 술값은 내일 계산하겠다고 한 뒤 마침 생명공학연구원 이상기 원장의 호출을 받고 이곳에 도착한 노영희 기획부장과 함께 그 자리를 떴다.

한편 한나라당은 28일 윤리위를 열어 ‘국감 항음’ 파문의 당사자인 임인배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또 임 위원장과 함께 술 자리에 동석한 같은 상임위 소속 김태환 의원에게는 경고 및 사회봉사 15일 결정을 내렸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명량대첩’ 재현

간 전투 장면을 재현했다.

제 410주년 명량대첩 축제 이틀째인 지난 27일 울돌목에서는 명량해전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재현 행사에는 어선 100여척이 참가해 조선 수군과 왜선 수군과 왜군으로 나뉘어 어선을 이용해 직접 명량해전을 재현했으며 육지에서는 함포 사격으로 전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장에는 해남군민과 관광객 등 5만여명이 참석해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명량대첩 현장서 고개속인 日 후손들

왜장 구루시오 후손 7명 전사자 위령제 참석 헌화

‘제410주년 명량대첩제’를 맞아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대패한 왜장 구루시오의 후손들이 지난 27일 전투 현장인 해남 울돌목에 찾았다. 해남을 방문한 일본인 후손은 모두 7명. 이들은 이날 열린 명량해전 전사자 위령제에 참석, 이순신 장군 영정에 헌화하

고 고개를 숙였다. 구루시오 장군 자신의 후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후쿠모토 다쿠미(61)씨는 “구루시오 장군에 대해 공부하다 이순신 장군과 명량해전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며 “오늘 행사가 한·일 양국간 오랜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위령제가 열리기 전 해남 울돌목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명량대첩제의 하이라이트인 이 행사에는 해남 어민 60여명이 조선 수군과 왜군으로 나뉘어 어선을 이용해 직접 명량해전을 재현했으며 육지에서는 함포 사격으로 전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장에는 해남군민과 관광객 등 5만여명이 참석해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광주·전남 교통사고...전국 2·3위

국감서 지적...주행거리 1억km당 77회

광주와 전남지역이 교통사고 빈도를 보여주는 등폭 자동차의 주행거리 1억km당 사고 발생건수에서 경북에 이어 2,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

수(한나라당·경북 영천)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2006년도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자동차 주행거리 1억km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7.38건, 전남은 77.02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77.40)에 이어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대전은 47.97건으로 가장 적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북지역은 주행거리 1억km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각각 3.24명(3위), 124.8명(3위)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희수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교통사고 및 자동차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김석원씨 “변양군에 수억원 줬다”

검찰 대가성 등 조사

김석원(62)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의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8일 김 전 회장이 변양군(59·구속)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역대 금품의 성격과 진술을 조사를 했다.

김 전 회장은 변양군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던 신정아(35·구속)씨가 김 전 회장과 변양군 사이에서 금품 전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신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검찰은 일단 이 돈이 지난 2월 김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청탁 대가는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금품을 전달한 목적과 범죄 관련 여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30일 변 전 실장과 신씨를 기소할 예정인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부정한 이유로 김 전 회장의 돈을 전달받았

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변 전 실장의 범죄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만약 신씨가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도 이 돈을 변 전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을 경우에는 신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신씨는 김 전 실장과 변 전 실장 사이의 금품전달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의 성폭행 내 자택에서 발견된 60억원대 과자금의 성격과 쌍용그룹 위장계열사로 추정되는 회사들로부터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아들 및 측근이 관여하는 회사들의 운영에 개입해 회사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서 압수한 물품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비자금 규모와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 ‘콩 발효식품 청국장 공장’ 준공

전남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평양의 ‘콩 발효식품 청국장 공장’이 준공됐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오전 평양시 만경대 구역 칠골동 현지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 대표 및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평양 청국장 공장은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가 지원해 건설됐다.

공장 설립을 위해 전남도는 도비, 성금 등 모두 8억 8천만 원을 들여 건설자재와 기계설비,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지원했다. 공장이 본격가동되면 하루 1만 6천명 분의 청국장 분말 등 콩 발효 식품을 생산, 평안남도 지역 어린이들의 영양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준공식을 마친 전남도 방북단은 평양시 낙랑 구역에 있는 시설원에 체소단체인 남새(야채)공급소 내 남새 온실과 저온저장고도 둘러봤다.

박 지사는 “우리 전남도민의 뜨거운 정성을 모아 건설한 이 공장에서 생산될 청국장이 우리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줄 바란다”며 “이번 공장 준공은 민족 화합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

“남북 통일비용

최고 1조3천억달러

남북 통일비용은 최소 8천억달러에서 최대 1조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 같은 액수는 국내 총생산(GDP)의 6%대여서 남북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이사장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자료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2015년 통일시 2016~2025년 10년간 8천577억달러(GDP 현재까지 합계 6.63%)로 추산됐다.

이는 북측 1인당 소득이 남측 절반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소득조정 완료시까지 경제분야에 한해 남북을 분리 관리한다고 가정된 것이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변함없는 지지에 눈물이 날지경

인사말씀

이번 先親(故 이창규 무등저축은행 회장) 喪事時 바쁘신 중에도 鄭重하신 弔意를 베풀어 주신 여러 어르신께 感謝를 드립니다. 慌忙中 일일이 찾아뵙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 하오며 우선 지면을 통해 고개속여 인사 드립니다.

2007년 10월 29일

未亡人 최이
嗣子 김김강이
女 孫 이
子 孫 이
婿 弟 이
孫 이
外 孫 강

삼형형상지운형진춘진윤민유
순훈철은인진주영택호서정승

당사 故 이창규 회장의 葬禮式이 여러분의 후의와 애도속에 지난 25일 嚴修되었습니다.
당일 公·私間에 바쁘신 중에도 왕림하시어 故인의 가시는 길에 따뜻함을 더해 주신 여러분께 衷心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29일

주식회사 무등저축은행·재단법인 무등문화재단 임·직원 일동

2008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1.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안내사항	
지원서교부 (일반전형)	2007.11.7(수)~11.14(수) 17:00까지	전남대학교홈페이지(http://admission.chonnam.ac.kr/professional)에 접속하여 원서 작성 후 출력	
지원서 접수 (일반전형 접수기간)	우편 접수 2007.11.7(수)~11.13(화) 17:00 (모람 사한 내 도착까지 유한)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행정실 우) 500-757	
	창구 접수 2007.11.12(화)~11.14(수) (매일 09:00~17:00까지)	○ 제출주소: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행정실 (용봉문학관 4층)	
2. 모집전공 및 모집인원			
과정명	구분	전공(수학연합)	모집정원(석사)
석사학위 과정		문화예술이론및기획전공(2년)	13명
		문화관광전공(2년)	13명
3. 지원자격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8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제출서류			
입학지원서 (1) 1부, 입학지원서 부연 (1) 1부, 입학전형료 납부영수증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출신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기설계서 1부			
5. 기타사항			
1. 웹 사이트 문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culture.chonnam.ac.kr) 2. 전화문의: 문화전문대학원 행정실 [T.062)530-1477~8]			

금당부동산

☎ 223-7400 ☎ 016-632-5659 (위치: 충장로 574거리 코너 2층)

투자
-우주빌사기치, 고층건물 임대 수익지역 3000평 7천만원
-사할, 전원주택지, 남평검문소부근, 그 린랜드, 1840평 주택임대, 2억
-나주시 병화 학신도시 부근 주택임대 4000평 5400만원
-다세대부지 산수동거리 대지1186평 7세대허가될 담보 2억6천 대도 3억3천

매도·교환
-운양동 백산 불주면 아파트 46평 내년 8월 입주, 계약금 2,500만원 납입했고, 연금 5천만원 대에서 교환원, 매도 3억3천
-곡성읍 세계의 광주에서 20분 명당전원 주택지 483평 7500만원 교환가
-금남로57가 4층건물 대지14 건물44 전세 4400만원 4662만원 매도9999원
-양양군 주택산 필장용가든 대지371 건물100 온실1억 교환가 2억4천
-전대부부 대지60 건물120 일부는 공실 전세 8500만원 월 230 매도 5억5천

감정가이하
-화순군 농주면 소재지 최고상권 대지 286 평 412 건물10억이상 매도? -충장로57가 3층건물 대지35 온실1억 공사 3억7천 매도 3억6천
-양동 삼가·목욕탕·여관 대지139 건물 459 건물 7억선 매도 8억6천

구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교환·개발·건축 등의 각종 물건을 구하며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함께 일합시다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 못 이루겠습니까. 손잡고 함께할 분을 모시오니 찾아주시: 면 합니다.
-금남로 57가 우원은행 옆 태세네마사:

금매

국도변

♣ 나주·남평역 인근

♣ 남향투자 최적지

♣ 산산 최적지

♣ 22,353㎡ (7,000평)

♣ 주인직접 (평당3만)

010-7704-0052

금매

태양광 발전소 및 연수원 예정부지

◎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 관리지역 임야 85,950㎡

◎ 분할가능, 정남향

◎ 전력380kw 설치됨

◎ 매매가는 상담후 결정

연락처

062)236-0764
010-6889-7100